

국민 화합과 소통... 협치 시험무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오늘 결정



5·18 추모 열기 절정 제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이날 부모를 따라 묘역을 찾은 어린이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묘비 앞을 지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당 원내대표 기념곡 지정 촉구에 박대통령 "방법 찾아보라"

5·18단체 "보훈처 발표 기다려 보자"... '통합 신호탄' 기대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될 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관련기사 3·7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보훈처에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진일보한 발언을 하면서 올해 기념식에서는 제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 여부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16일 오전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일정 발표 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훈처는 '제창' 문제를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정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론 분열 방지'라는 단서를 단 만큼 우선은 제창부터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등이 향후 사회통합과 여야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훈처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정비 절차를 통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차례 간곡히 설명 드리고 대통령께서 선물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보훈처에 좋은 방안 강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면 사회 통합의 신호탄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5·18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보훈처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박 대통령이 보훈처에 국론 분열이 없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여태 박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아껴온 것을 생각해보면 진일보 된 것 아닌가 싶다"며 "보훈처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보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원론적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석도 일부 나왔다. 보훈처가 "국론 여론이 찬, 반으로 갈리고 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무리며, 별도의 기념곡 지정도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광주전남시민사회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에서의 제창 촉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靑·3당 대표 분기 회동 정례화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서 합의...빠르면 9월 이뤄질 듯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 및 3당 대표 분기별 정례회동에 합의한 가운데 첫 번째 회동은 빠르면 9월 중에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15일 예상했다. 여야 3당의 당대표 선출 스키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새누리당은 이르면 7월말, 늦으면 8월초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민주 역시 8월말에서 9월초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회동에선 박 대통령-3당 대표 만남의 정례화로 합의했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서는 3당 원내대표가 함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점현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입법 현안에서 진두지휘할 원내 사령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 회동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

키로 합의한 만큼 이 회의가 여야정 회의체로 자리 잡으면서 현안 조율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회의체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당 정책위와 장관들이 만나는 형식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협치의 형식적 틀에는 합의했지만, 정점현안의 내용을 놓고선 기존 입장을 유지한 만큼 노동개혁법안 등 각론 전투에 들어간다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을 매 분기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및 서비산업발전기금 등 정쟁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74·충북 제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청와대 선임 수석이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조정 수석에는 안종범(57·대구)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의 대표적 인 정책통인 강석훈(52·경북 봉화) 의원을 발탁하는 등 4·13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여 만에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프롤프 2면>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 교체 등을 통해 4·13 총선 이후 청와대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관료 출신의 행정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

으로 도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선과 관선으로 충북도지사 3차례나 역임했다. 이 신임 실장은 충북도지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과 서울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세계에 알린 외신기자들 ▶6면



KIA 서재용·최희섭 은퇴식 ▶20면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